月刊 金大基
3월호

Work-Book
4주 1차 정답표

* 정답은 문항 옆에 붙어 있는 미주 번호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66) ②

(가)의 화자는 사랑하는 '행인(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흐르는 물로 만나자.'라고 하면서 '나'와 '너'가 '우리'로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어. 따라서 '(가), (다)에는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라고 한 ②가 적절한 설명이지.

267) ③

(다)에서 ⓒ'물'이 '죽은 나무뿌리를 적'신다는 것은 '물'이 현대 사회의 여러 병폐에 찌들어 사라져 버리는 것들에 새 생명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정화와 재생'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옳아. 따라서, ⓒ'물'이 '소멸과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

268) ④

(가)는 참된 사랑의 본질인 희생과 믿음을 노래한 시로, 2연에는 '당신'에 대한 '나'의 헌신적 태도가 형상화되어 있기는 해. 하지만 하고자 하는 말을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지. 따라서 ④"2연은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당신'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희생이 무조건적임을 드러내고자 한 거 같아."는 (가)를 잘못 이해한 거지.

269) ③

<보기>에서 (나)의 [A]로 고쳐진 부분을 살펴보면, '내 혼자 마음을 나처럼 아실 분이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향이 맑은 → 향맑은', '하련만 → 하오련만', '연기인 듯 → 연긴 듯', '희미한 → 희미론', '모르리라 → 모르리'로 바뀌었어. (나)의 [A]는 이렇게 음절을 줄여 씀으로써 리듬감을 살리고 내밀하고 섬세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따라서, ③이 고쳐 쓴 이유로 가장 적절해.

270) ④

(다)의 ㉠은 '숯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고통과 괴로움을 보듬고 위로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지. 이와 유사한 시적 정조가 나타난 것은 ④야. 할머니가 소 목덜미에 손을 얹어 소를 보듬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있으니까.

271) ④

(가)의 '바람'은 자연(풍광)을 의미하고, '벗'은 풍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 '파람'은 휘파람으로 자연을 즐기는 풍류를 의미해. 그리고 (나)의 '청풍(淸風)'은 땀을 흘리고 볕을 쬐며 일하다가 잠시 쉬면서 쐬는 맑은 바람이고, '파람'은 역시 휘파람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그리고 '길 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의미해. 이렇게 시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④"(가)의 '파람'은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표현하는 것이고, (나)의 '파람'은 노동 후의 휴식을 표현하는 것이다."가 적절한 설명이야.

272) ⑤

ⓐ는 '내 몸이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는 뜻이고, ⓑ는 '세월이 한가하다.'라는 의미야. 즉, ⓐ는 여기저기 자연을 구경하느라 한가한 틈이 없다는 것이고, ⓑ는 자연을 즐기는 느긋한 마음을 한가롭다고 표현한 거지. 따라서, ⓐ와 ⓑ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⑤'자연 속에서 이리저리 노니는 한가로운 정서를 즐기기에도 겨를이 없다.'야.

273) ①

[A]는 '복희씨의 태평성대를 모르고 지냈었는데 이 때야말로 태평성대로구나. 신선이 어떻던가. 이 몸이야말로 그것이로구나. 강산 풍월 거느리고 내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의 이백이 살아 온다 한들 넓고 끝없는 자연과 하나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지. 이와 같은 주제 의식을 담고 [A]의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①이야.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자유와 행복감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의 고귀함을 깨닫는다고 했으니까.

274) ②

(나)의 <4장>은 아침부터 들에 나가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즐거움을, <6장>은 저녁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을 노래하고 있어. 즉, 농촌 생활의 분주함과 함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⑤), 다른 사람들('길 가는 손님')과의 유대(④)나 시간의 경과 및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지(③). 그리고 <4장>의 1행을 보면 시어가 반복돼 시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고(①). 하지만 '머무는고', '재촉하는고'와 같은 의문형의 종결 형태는 시적 정서를 드러내는 것일 뿐, '삶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따라서, ②는 잘못된 감상이지.

275) ①

제시된 글에서 서술자는 '나'이지만 중심 인물은 '할머니'와 '아주머니'이다. '나'는 '아주머니'를 통해 듣게 된 과거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관찰자인 것이다. 서술자('나')에 의한 사건의 의미 부여는 글의 끝 부분에 가서나 약간 나타날 뿐 다양한 각도에서 제시되지는 않았다.

[오답 피하기]

② 과거 회상 대목에서 '모른다'라는 말이 자주 반복되었는데, 이를 통해 전쟁 당시의 살벌한 분위기와 불신 풍조가 부각되고 있다.

③ '아주머니'의 회상을 통해 과거의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④ 과거의 사건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체험한 주체는 '아주머니'와 '할머니'이다. 그들과 서술자인 '나'는 구별된다.

⑤ '나'는 '할머니'의 도리질에 대해 오해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아주머니'가 전해 준 이야기를 통해 그러한 오해와 의문을 풀게 되었다.

276) ⑤

ⓐ~ⓓ는 [A] 부분에 직접 제시되었거나 정황으로 미루어 충분히 있었음 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이 그 어머니를 구하려다가 죽음을 당한 것으로 짐작할 만한 근거는 나타나 있지 않다.

277) ①

㉠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속담은 ①이다. ①은 세 치밖에 안 되는 짧은 혀라도 잘못 놀리면 사람이 죽게 되는 수가 있다는 뜻으로, 말을 함부로 하여서는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오답 피하기]

② 아주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나쁜 일을 아무리 남모르게 한다고 해도 오래 두고 여러 번 계속하면 결국에는 들키고 만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무슨 일이거나 너무 오래 끌면 그 일에 대한 성의가 없어서 소홀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말.

278) ⑤

'아주머니'가 남편을 잃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의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나'는 숙연하게 감동을 느끼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은 문맥으로 볼 때 ㉡을 감동을 느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움을 느낀다는 의미로 쓰이는 '등골이 서늘하다', '등골이 오싹하다' 등의 관용어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오해임이 명백하다.

279) ④

이 작품에서 '할머니의 도리질'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참상 때문에 나타나게 된 행동이라는 점에서, ①과 같이 측은한 마음이 들게도 하고, 작품의 내적 연관성을 고려한 ②나 ③ 같은 반응을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비극적 참화를 부각시키는 장치로 보아 ⑤와 같이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④는 무리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의 어느 곳에서

도 '할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80) ③

설화의 형식 및 내용 전개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정답 해설

이 글의 특징은 꽃을 의인화하여(①), 인간 세계를 풍자하여 교훈을 주고 있다(④). 특히 할미꽃과 장미꽃을 대비시켜(②), 독자의 흥미를 끌고 있다(⑤). 그러나 서술자의 주관이나 시각이 개입되어 있지 않고 서술자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입장에 서 있다.

281) ①

문맥적 상황에 적절한 한자 성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해설

㉠은 명주실과 삼실이 있을지라도 궁할 때를 대비하여 기렁풀(띠)와 왕골을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적합한 한자 성어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오답 피하기

② 초지일관(初志一貫) :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 같음. ③ 다다익선(多多益善) :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 ④ 미인박명(美人薄命) : 재능이 많은 사람을 일찍 죽음. ⑤ 일석이조(一石二鳥) : 하나로 두 가지의 이익을 얻음

282) ③

상황에 적합한 노래를 다른 장르에서 찾을 수 있다.

정답 해설

장부(백설옹)가 나아가 한 말은 충신을 가까이 하고 간신배를 멀리 하라는 충언이므로 이와 같이 노래는 간신들의 횡포가 임금을 마음대로 어지럽히는 것을 풍자한 ③번의 시조이다.

오답 피하기

① 자신의 처신에 대한 변명. ② 물의 영원성을 찬양함. ④ 고려의 멸망에 대한 개탄. ⑤ 변함없는 절개를 강조함

283) ④

필자의 관점에서 글의 주제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해설

이 글의 주제는 왕은 간사하고 요망한 자를 멀리하고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화의 배경은 신문왕이 설총을 불러 이야기를 하라고 하자 설총이 꽃을 의인화하여 간접적으로 임금을 충고하는 형식을 빌었다. 따라서 임금이 설총의 이야기를 바르게 받아들였다고 가정할 때, 설총이 충고한 내용은 결국 간신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③).

284) ⑤

세 번째 형식 문단 마지막 문장을 보면 "고대의 천문학자들은 고대인들에게 천문학적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라고 밝히고 있다(⑤).

오답 피하기

①진리가 바뀐 것은 아니다. ②인식하지 못한다.③지구 중심 관점이 아니라 태양 중심 관점이 명쾌하게 바꾸어 놓았다. ④태양 중심 관점은 이상한 곡선에서 타원 모양으로 행성 운행 궤도를 바꾸어 놓았다.

285) ④

내용에 따른 구체적 사례를 들 수 있다.

정답 해설

잘못된 준거의 틀 사례를 현실에서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즉 객관적 현실로 오해하는 사례를 들어야 하는데 ④번은 준거의 틀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 현실로 오인하지 않는다.

286) ②

상황에 적합한 속담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해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던 중세인에게 객관적 진리를 인식하고 있었던 코페르니쿠스가 할 수 있는 말은 ②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군.'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고양이 쥐 생각 : 마음 속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누구를 위하여 생각해 주는 척 할 때 쓰는 말 ③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 애써 추구하고 경영해 오던 일을 남에게 가로채어 넋을 잃는 경우를 이름. ④ 나무에 오르라 하고 흔드는 격 : 남을 불행한 구렁으로 끌어넣는다는 뜻. ⑤ 남의 잔치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한다. :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뜻.

287) ③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해설

진리의 반대편이 이단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기존의 관점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준거의 틀을 변화시켜 새로운 통찰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8) ①

어들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여야 하는 문제이다.

정답 해설

준거의 틀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나오므로 '가설'이 '이론'으로 확정되는 것과 같다.

289) ②

끝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자. '예컨대 고생대 말에 삼엽충과 푸줄리나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러한 대규모 멸종의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운석의 충돌도 그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어. 즉, 이 글에는 운석의 충돌로 삼엽충이 멸종되었을 것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삼엽충의 탄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 따라서, ②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290) ④

이 글은 운석에서 나온 외계의 유기 분자가 지구 생명의 기원이 되었다는 주장(포자설),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 지구상의 생명을 멸종시켰다는 주장. 외계에서 온 유기물과 지구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모두 생명의 탄생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주장 등을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즉, 이 글은 서로 다른 주장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는 거야. 따라서, ④가 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다.

291) ②

필자는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설들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설'은 근거를 가져야 성립할 수 있다(③)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기까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제기될 것이다.'를 보면, '가설'은 타당성을 검증할 방법을 찾아(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은 다양한 가설들이 생겨나서 다른 가설들과 서로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또, 이를 통해 '가설'은 과학적 증거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중도적인 입장에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가설'과는 전혀 상관없다.

292) ⑤

ⓐ - 4~6세기 경에 축조된 신라 고분 금령총에서 유리구슬이 나왔다.

ⓑ - 금령총에서 발굴된 유리구슬에서 알칼리 석회 성분이 검출되었다.

ⓒ -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신라에서는 유리를 제조하지 않았다.

ⓓ - 당시 아라비아에서만 알칼리 석회 성분이 포함된 유리를 생산했다.

이렇게 살펴보니, <보기>에는 추론의 결론에 해당하는 ⓒ가 없다.

293) ③

'유기 분자가 운석에 실려 외계에서 지구로 ㉠온다는 것은 ~'은 유기 분자가 운석에 실려 외계에서 지구로 흘러 들어온다는 의미야. 이러한 의미의 말은 '유입'이지. 이건 '(물이나 공기 따위를) 흘러서 들어옴'을 뜻하는 말이거든. 답은 ③이네. ①은 '물자나 자금을 들여 넣는다.'는 의미이고, ②는 '외국의 물품을 사들인다.'는 의미야. ④는 '이미 짜여진 대열 등에 끼어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⑤는 (기술.방법.물자 등을 외부에서 내부로) 끌어들인다.'는 의미이다.